내년 2월 예비후보 등록…선거판, 여전히 '예측불허'

강기정 민형배 문인 이병훈 정준호

강기정 vs 민형배…문인·이병훈 '추격'
유력 인사 등장 등 '거물급 변수' 촉각

광주시

'민주당 경선 승리=당선' 공식 속 입지자 본격 경쟁 후끈

국힘·조국당·진보당·개혁신당·정의당 등 후보군 출사표

대통령실·중앙부처 차출설…송영길 대표 출마 가능성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3 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호남정치 1번지' 광주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만큼 '당내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 속에 입지자들의 물밑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경선은 5파전이 예상되고, 본선에선 민주당과 맞설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국민의힘 등도 출마 후보를 준비하고 있어 다자대결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민주당에서는 현재까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민주당 소속 강기정 시장의 연임 도전에 맞서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 문인 북구청장, 이병훈 전 의원, 정준호 의원 등 5명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3선 국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등 당내 주요 요직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 후보 호남총괄특보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경륜과 국정 경험이 풍부한 점이 강점이다.

강 시장은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국화를 이끌어냈다. 여기에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도 정부 주도 이전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특히 인공지능(AI) 산업을 광주 미래 성장동력으로 안착시키는 데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타운홀 미팅 후폭풍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고배 등 일부 악재로 고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을 통해 '친명(이재명)' 후보 이미지로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형배 의원도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 민선 5·6기 광산구청장과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중앙과 지방의 폭넓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실천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그는 특히 2022년 검찰 개혁 법안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처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높은 인지도를 확보했고,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전남지사와 국무총리, 당 대표를 지낸 이낙연 후보를 침몰시키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민 의원은 이 같은 '친명 의원'과 '개혁 쇄신' 이미지로 지역 내 인지도를 얻으면서 강 시장의 대항마로 부상하고 있다.

'행정의 달인'으로 통하는 문인 북구청장도 차곡차곡 인지도를 높여가며 광주시장 출마 준비에 분주하다. 문 청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광주시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까지 두루 섭렵한 자타가 공인하는 '기획통'이다. 문 청장은 SNS 전략을 활용하면서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등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는가 하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을 강조하며 인지도 쌓기에 주력하고 있다.

문 청장은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치며 연내 조기 사퇴 등으로 선거전에 나설 계획이지만, 최근 '전국노래자랑' 여성 공무원들의 백댄서 논란 여파로 주춤한 상태다.

정청래 당대표의 '호남 메신저'로 통하는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행정고시로 공직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그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친 뒤 광양군수, 전남도 기획관리실장, 아시아문화도시추진단장,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토크콘서트를 열면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시작했고, '지역 발전의 절호 기회'라며 호남특위를 지렛대 삼아 지역 현안과 민생 챙기기에 분주한 일정을 보내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젊은 피'의 열정과 패기가 강점인 40대 기수 정준호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그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도시철도 2호선,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 송정역 증축 등 교통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정치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안태욱·김정현, 진보당 이종욱, 개혁신당 최현수, 정의당 강은미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중 민주당 텃밭 내 대안 세력으로 주목받는 조국혁신당은 서왕진 원내대표의 출마 여부가 점쳐진다.

특히 이번 광주시장 선거는 새로운 후보 등장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의 유력 인사 차출설, 그리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거물급 변수'가 선거판을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김영록 주철현 신정훈 이개호 김화진

3선 도전 김영록, 민주당 중진과 맞대결
현직 프리미엄·핵심 성과 앞세워 수성전

전남도

인공태양 등 사업 성과로 입지 탄탄…업무수행평가도 1위

주철현·신정훈·이개호 등과 경쟁…서삼석 지지층 '변수로'

야권·조국신당 등 움직임 주목…비전 제시로 승패 판가름

내년 6월 치러질 전남도지사 선거는 3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주당 중진의원들이 맞붙는 다층 경쟁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최근 주요 국책사업 유치로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한 김 지사에 맞서, 여권 내부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세대 변화·정책 대전환을 내세운 도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산업 지형이 AI·에너지·우주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가 단순한 권력 교체를 넘어 향후 10년간의 성장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김 지사는 '전남 최초 풀타임 3선'에 도전한다. 강진·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18·19대 국회의원과 민선 7·8기 지사를 역임하며 지역 행정 경험과 정치적 기반을 동시에 갖춘 점이 강점이다. 특히 올해 오픈AI·SK 데이터센터 유치, 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 선정,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를 연달아 성사시킨 데다, 전남 전 지역이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고 누리호 성공 발사가 더해지면서 전남의 미래 산업지형을 바꾸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산업 전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직의 성과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뒤따른다. 광역단체장 업무수행 평가에서도 12개월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지지도도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립의대 신설 등 난제 해결을 내세우며 사실상 3선 행보를 공식화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경선은 이례적 난도 높은 경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전남 정치지형 특성상 경선 구도가 곧 본선 구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며 세대 교체론부터 권역 균형론까지 다양한 문제의식이 표출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동부권의 대표 주자인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지난 9월 "24년째 서부권 지사 체제는 불균형"이라며 '동부권 소외론'을 제기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여수시장을 역임한 그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조직 기반을 넓혔고, 2022년 대선 당시부터 함께해온 '원조 친명' 이미지를 강조한 핵심 비전을 앞세워 지지를 모으고 있다.

중부권을 기반으로 한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8일 공식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신 의원은 나주시장을 지냈으며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정부·국회 관계를 조율해온 경험을 갖고 있다.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 겸 조직본부장을 맡으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치적 신뢰를 쌓았고, 정부 출범 초기에는 내각 입각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여권 내 존재감을 키워왔다.

전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4선 중진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도 출마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일찌감치 지사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전남 균형발전·농정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안정감을 무기로 경선 구도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돌풍 속에서도 유일하게 민주당 의석을 지켜낸 저력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 최고위원 서삼석 의원(무안·영암·신안)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서 의원의 지지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경선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김 지사가 서부권, 주철현 의원이 동부권, 신정훈 의원이 중부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 기반을 확보한 만큼 지역별 표심 이동은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권역별 결집 구도'가 재현될 경우 복잡한 표심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외 정당들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조직 재정비에 나서며 돌풍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 조국혁신당에서는 박필순 전남도당위원장 권한대행이 거론된다. 진보당은 김선동 전 의원을 중심으로 후보군을 꾸리고 있으며, 노관규 순천시장은 민주당 입당을 전제로 출마설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경선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전남의 미래 전략을 둘러싼 선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국책사업 유치로 모멘텀을 잡은 현 지사 체제의 연속이냐, 지역 균형과 정치적 세대교체를 앞세운 중진 의원들의 도전이냐를 두고 전남 민심이 향후 몇 달 동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신산업 전환기라는 시대적 배경까지 더해지며, 이번 선거가 전남의 경제 구조·지역 균형·정치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선거영향 홍보물 발송 NO"…제한·금지 사항은

지자체장·교육감, 단체행사 참석 일부 제한

선거운동 '내년 5월 21일~6월 2일' 진행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을 배부해선 안 된다.

먼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지난 5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6월 3일까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의 사업설명회, 공청회, 기념일, 축제 등의 안내, 재난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집단 민원 해결 등의 목적으로는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다.

지역 관련 각종 통계·정보 등을 알리려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 연감, 총람도 발간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은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 예정자 등은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은 내년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쓰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주거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내년 2월 3일부터, 시·도의원 선거와 구·시의원 선거, 구청장·시장 선거는 내년 2월 20일부터, 군의원 선거와 군수 선거는 3월 22일부터 각각 받는다.

선거법 관련 문의 및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